

목포 전통시장 노상적치·하역차량 통행 방해 빈축

보행자·전동 휠체어 안전사고 우려
전수조사·실질 행정조치 요구 확산
市 “원상회복명령·행정대집행 방침”

목포의 한 전통시장에서 장기간 이어진 노상 적치물과 하역차량 등으로 시장 내부 통행로가 좁아지면서 보행자와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의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원인 김모씨는 최근 목포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시민소통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시장 내부 통행로의 차량 정차와 적치물, 하역차량 등으로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시장 내부 좁은 통행로에 차량이 정차하거나 소방차 출동로를 침범한 모습, 통행로에 돌출된 적치물, 하역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와 전동휠체어가 차량 가까이에서 통행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김씨는 “오랜 기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한 시장 미관이나 영업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지역경제과와 건설과 등 관계 부서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목포지역 한 전통시장에서 무분별한 노상 적치물과 하역 차량 등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민원인 제공〉

지역경제과는 행정지도와 상인회 협조를 중심으로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건설과는 시장 내부 도로가 업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부서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시장 내부 통행로에 대한 관리·조정 책임부서를 명확히 하고 상인회 차원의 자율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개입할 수 있는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황색선과 소방차 출동로 표시의 범

적 성격도 점검이다.
민원인은 “해당 황색선이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단속을 위한 기준선인지, 아니면 단순한 권고성 표시인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주정차 단속 대상이라면 차량 정차가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지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적치물이나 차량을 피하던 보행자가 넘어지거나 차량과 보행자 사이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의 관리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원인은 시장 내부 통행로 전수조사와 점포별 적치물 돌출 폭 및 실제 통행폭 측정, 관계 부서별 업무 범위와 최종 책임부서 명시, 하역차량 관리 및 소방차 출동로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지역경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등 관련 부서별 답변을 내놨다.

지역경제과는 “시장 통행로 무단점유와 통행 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현장 행정지도 9회, 상인회 협조 요청 공문 3회, 해당 상가에 대한 수시 유선 계도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장이 사설시장으로 전통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동부시장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장이라는 게 목포시의 입장이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했으나 전통시장법상 처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건설과는 “시장 내부 황색선 일측의 적치물이 계속 정비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명령을 1·2차로 실시하고, 이후에도 적치물이 남아 있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통행정과는 시장 내부 황색선의 성격에 대해 “시장 내부 황색선은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최소 4m 이상의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고 상품의 무단 적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고객선’, 즉 적치물 경계선”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황색선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를 위한 단속용 노면 표시가 아니며, 시장 내부 도로 역시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기 어려워 황색선 자체를 근거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민원을 계기로 시장 내부 통행로의 적치물과 하역차량 문제에 대한 목포시의 행정지도가 실제 정비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목포=정해선 기자

새롭게 조성될 삼호시장 조감도



영암 ‘삼호시장’ 새단장 밑그림 나왔다

郡, 113억원 투입 2028년 개장 목표

2층 규모 50개 이상 점포 입점 가능

내외국인 소통 ‘하모니거리’도 연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새롭게 선보일 ‘삼호시장’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확정하고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삼호시장 조성사업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열어 강건건축사 사무소가 제출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새로 건립될 삼호시장은 삼호읍 용양리 일원에 부지면적 5천226㎡, 연면적 1천990㎡ 규모로

조성된다. 50개 이상 점포가 입점하는 현대적인 2층 규모의 종합시장으로 2028년 개장 목표다.

설계공모에는 15개 업체가 참가 등록하고 7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심사위원회는 공간 계획과 이용 편의성, 점포 배치와 동선,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했다.

심사 결과, 당선작은 약 300m에 달하는 길고 좁은 부지 고유의 특성을 시장 공간 안에 효율적으로 녹여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특히 이용객들이 시장 곳곳을 막힘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적의 점포 배치와 동선을 구축하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루 살린 쾌적한 열린 공간을 구현했다.

또한 삼호시장 인근에는 내·외국인 주민이

다함께 어우러져 소통하는 ‘글로벌 하모니거리’ 조성 사업도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함께 추진되고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은 당선작을 바탕으로 실시설계 등 후속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제 운영 편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우승회 영암군수는 “삼호시장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삼호에서 소비가 이어지는 시장으로 만들겠다”며 “글로벌 하모니거리 등 주변 상권과 어우러져 사람들이 찾고 머무는 삼호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강진군, 주민 소장 사진·문서 AI 복원 지원

지역 역사·생활문화 아카이브 구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은 1일 “최근 고령화와 지역 소멸로 훼손되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주민 소장 기록물인 사진과 앨범, 문서 등을 디지털 자료로 변환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강진읍에 거주하는 고령층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오랜 세월 빛바래고 훼손된 옛 사진을 최신 AI 기술을 활용해 원형에 가깝

게 복원했다.

또한 사진 속 시기와 장소, 인물 등에 대한 설명과 주민들의 기억과 경험을 담은 구술자료를 함께 수집해 향후 지역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했다.

군은 높은 주민 참여도와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범위를 마을 단위로 확대할 방침이다.

마을별 역사와 생활문화, 공동체의 기억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할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간직해 온 한 장



강진군이 AI 기술을 활용해 복원한 사진. 〈강진군 제공〉

의 사진은 개인의 추억을 넘어 지역의 역사를 담은 기록”이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주민들의 소중한 기록을 안전하게 지키고 미래 세대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박길종 기자

함평군, 걷기 앱 활용 ‘공초 줍깅’ 챌린지

이달 10만보·공초 수거 시 기념품 증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은 1일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공초 줍깅(줍다+줍깅)’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9월 한 달간 진행되는 챌린지는 일상 속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고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꽂

를 수거해 쾌적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챌린지 완수 조건은 ‘누적 10만 걸음 달성’과 ‘담배꽂초 줍기 인증 1회’ 등 2개다. 담배꽂초 수거 활동 사진을 촬영한 뒤 워크온 앱 내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면 인증이 완료된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함평군민이나 직장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워크온 앱을 설치하

고 함평군 공식 커뮤니티인 ‘매일매일 걷는데 이’에 가입한 뒤 ‘참여하기’를 누르면 된다.

보건소는 2개 미션을 달성하고 응모를 마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홍보물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남호 함평군수는 “챌린지로 개인 건강을 증진하고 담배꽂초 줍기로 마을 환경까지 조성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길 바란다”며 “군민들의 적극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해남군 ‘그냥해드림센터’ 내년 시범 운영

65세 이상 대상 전동·수도 교체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은 1일 “어르신들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는 ‘그냥해드림센터’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냥해드림센터는 전동 갈아끼우기(사진) 수도꼭지 교환, 문손잡이 교체, 노후 멀티 콘센트 교체, 샤워기(노즐·헤드) 교체와 같은 다양한 생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공공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소규모 수리와 생활불편 사항을 전화 한 통으로 접수받은 뒤 현장을 방문, 48시간 이내에 처리한다.

수선 재료는 이용자 준비가 원칙이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가구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재료를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사업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해남지역자활센터에 전담 사업단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참여자 교육을 거쳐 센터를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전동 교체 중 겪을 수 있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돌봄·의료비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작은 불편 해소가 군민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의 첫걸음”이라며 “어르신들이 체감하는 생활 복지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영광군, 폭염 축산농가 피해 예방 총력

스트레스완화제 지속 공급 등 당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은 1일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과 습도로 인한 축산농가의 생산성 저하와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사 지붕 살수, 환풍기 및 안개분무기 가동 등 축사 내부 온·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할 것을 지역 농가에 당부했다.

가축에게 시원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사료는 기온이 비교적 낮은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 나눠 급여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남은 사료의 변질을 막기 위해 급수조를 수시 세척하고 더위에 취약한 어린 가축에게는

비타민 등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속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 종합영양제를 공급하고 농가 여건에 맞춘 안개 분무시설과 냉난방기 등 환경 개선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폭염 취약 농가를 중심으로 가축 사양관리 요령과 전기 안전수칙을 지속 안내하며 현장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폭염 장기화로 가축 면역력이 떨어져 작은 관리 소홀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늦더위가 끝날 때까지 시설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제19회 완도군수배 농구 대회 개최

5-6일 18개 클럽 350여명 참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은 1일 “오는 5일부터 이틀간 완도군 청해진스포츠클에서 제19회 완도군수배 한마음 농구 대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완도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완도군농구협회가 주관하는 대회는 농구 동호인 간 화합을 도모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전국 18개 클럽 농구 동호인과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경기 종목은 클럽팀, 40대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조별 예선 리그를 거쳐 본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최종 우승 팀을 가린다.

완도군체육회 관계자는 “농구 동호인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경기장 안전 점검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